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10월 25일(수) 총 5매	
담당 부서	관광마이스과	담 당 자	• 관광마케팅팀장	오현주 ☎440-4001
	공보담당관실		• 담당자	장은혜 ☎440-4004
			• 담당자	김미현 ☎440-307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는 인천서 머물러볼까?

- 혜택 가득한 송도·무의도·강화 체류형 관광상품 11월까지 운영 -
 - 체류형 관광상품, 지역 균형 발전, 인구 소멸 위기 해결 방안으로 역할 기대 -

혜택 가득한 2023 인천의 체류형 관광상품이 운영종료까지 한 달여를 앞두고 있다. 11월에는 인천에 머물면서 인천의 매력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인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체류형 관광 테마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3개 업체의 관광상품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인천 체류형 관광상품은 ‘위케이션’과 ‘살아보기’ 등 두 가지 형태로 11월 30일 운영종료까지 약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경험하며 머무를 수 있는 ▲인천 올드앤뉴(OLD&NEW), 인천 포내 어촌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인천 더휴일

위케이션 상품과 강화에 머무르며 강화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잠시섬 등 총 세 개의 상품이다.

운영 목적에 맞게 숙박과 업무공간, 관광지 이용권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체류형 상품은 이용객에게는 가격경쟁력과 특별한 경험을, 지자체에게는 지속 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균형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는 지역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해당 지역을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귀농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간을 초월하는 위케이션은 지역 균형 발전에 적합한 방안으로 지역 경제 붕괴와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곳에 위케이션을 도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위케이션은 휴일 단기 관광 중심에서 평일 장기 관광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해 운영한 체류형관광상품을 통해 비수기(주중) 기간 체류형 관광객 유입과 관광 소비 증대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1,187명(위케이션 201명, 잠시섬 프로젝트 986명)이 인천 체류형관광상품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1억 1,986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21개의 로컬 체험 프로그램과 15명의

지역주민 호스트 발굴 성과를 얻었다.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을 더 깊게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여행 문화를 고려해 좀 더 다양하고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게 꼭 맞는 인천 체류형 관광상품 찾아보기

인천시가 마련한 체류형 관광상품별 특징을 살펴보고 내게 맞는 여행 상품을 찾아보자.

인천 올드앤뉴(OLD&NEW) 위케이션 (www.incheon-old-new.com)



인천 130년의 역사를 지닌 개항장에서 즐기는 패키지(하버파크 호텔)와 눈부신 미래 도시 송도 패키지(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오라카이 송도 파크 호텔)로 구성됐다.

주중 투숙 2박에朝食, 업무공간, 인천 투어패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케이션 패키지 가격은 14만 8,000원부터(호텔별 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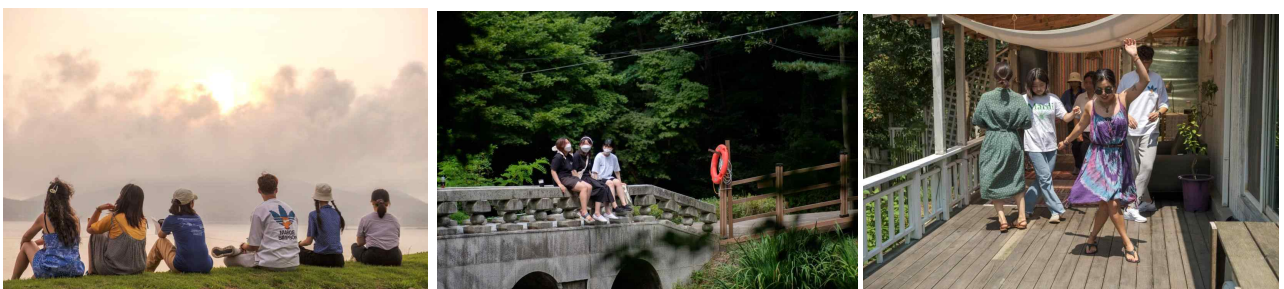
인천 더휴일 위케이션 (<https://thehyuil.co.kr>)



무의도 공유 오피스와 네스트호텔 숙박(주중 2박) 및 조식, 갯벌체험과 조개 공예 등의 해양 체험을 포함한 패키지로 이용 요금은 12만 4,000원부터다.

프로그램 운영업체인 (주)스트리밍하우스는 오피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분배하는 등 위케이션을 통한 균형 발전을 실천하고 있다.

강화 유니버스 잠시섬 (<http://www.guniverse.net>)



강화섬에 머무르며 자신과 동네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섬살이 프로그램으로 최소 2박부터 최대 5박까지 머무는 날짜와 일주, 숙소를 선택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하루 한 번 본인이 경험한 섬을 공유하고 회고하는 자리에 참석해야 하며 워크숍, 강연, 투어 등 20여 개의 로컬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게스트하우스 2박 숙박, 잠시섬 전용 일기장, 강화유니버스 라운지 이용 등이 포함된 패키지 가격은 7만 원부터다.